우도 - 국가 지정 명승

삼립으로 둘러싸인 우도곶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입니다. 우도곶의 해안선에는 수백만 년 전의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된 기묘한 형태의 바위와 거암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온 수도승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정신 수양을 위한 장소로 우도곶의 암석 지대와 해안가의 동굴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조직화된 종교의 발전, 특히 일본 내 불교의 보급은 신성한 장소에 신사나 사원을 건립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도 신궁이라는 신도(神道)의 종교 시설이 위치한 우도는 성역으로서 1200 년의 역사 속 다양한 지위에 있는 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천황 가문의 신성한 기원을 담은 고대 신화와의 관련 있는 우도 신궁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올리는 장소로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옛 순례자들을 놀라게 했던 암반과 거암들로 구성된 우도의 절벽은 지질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단단한 사암과 부드러운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어도 800 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갑의 남쪽 바다에서 돌출된 길고 가느다란 줄무늬 형태의 암석 지대입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빨래판과 닮아 있다고 하여 ‘도깨비의 빨래판’이라고 불리며, 부드러운 이암층이 단단한 사암층보다 빠르게 침식되면서 이처럼 독특한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2017 년, 일본 정부는 역사와 지질의 특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우도곶을 국가 지정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